



▲ 창립 31주년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상공부 김청배과장, 김선집 고문, 권용득 회장, 신기조 명예회장, 장운격 부회장)

홍보과장, · 남기범 기술과 대리,
· 김미숙 회원관리과 대리, · 전
희수 경기복지부 주임, · 김복진
경기남지부 주임, · 허정숙 광주
· 전남지부 주임

◎ 신규채용(1. 9부)

· 이경남 광주·전남지부직원

협회

창립 31주년 기념행사 가져

협회(회장 권용득)는 구랍 12월13일 창립 31주년을 맞아 정부 부처관계자를 비롯 임직원 및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해 협회의 위상과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협회 발전에 더욱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권용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의 협회 31년 역사는 정부 관계자와 임직원은 물론 전국 전기기사들의 노고와 땀방울로 이룩한 결과로서 이를 계기로 임원들은 협회에 대한 사명감과 애착심을 배가하는 한편 각 지부장은 해당지부와 개인의 권익을 초월한 대의 명분이 있는 행동거지로 협회와 회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국제화 개방화라는 작금의 현실을 각인, 31년 역사에 걸맞는 협회 내실화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그동안 협회 발전에 공이 큰 모범직원으로 기획실 김기용씨, 여운조씨, 홍무과 오영분씨, 인천지부 이순자씨, 경남서지부 최경화씨, 전북지부 이현옥씨, 경동북동지부 함미정씨를 비

회장 동정

- 12. 3 : 회장단 회의 주재
(충남 온양)
전국 지부장협의회 참석
(충남 온양)
- 12. 9 : 서울북동지부 전기인의 밤 참석
- 12. 15 : 전기협회 이사회 참석
- 12. 16 : 서울남서지부 전기인의 밤 참석
- 12. 19 : 전기안전공사 이사장 방문 면담
- 12. 20 : 경기남지부 전기인의 밤 참석
- 12. 21 : 전기관련 단체장 간담회 참석
경기복지부 전기인의 밤 참석
- 12. 22 : 서울북서부 전기인의 밤 참석
- 12. 28 : 제27차 이사회 주재

12월중 협회 주요 업무일지

일 자	주 요 업 무
1	월례조회
3	회장단 회의(충남 온양)
6	기술안전위원회
13	창립 31주년 기념행사/전국 지부장회의/운영위원회
14	창립 31주년
16	교육홍보위원회
19	운영위원회
21	증장기발전위원회
22	전기설비 안전진단 기술간담회
23	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
28	제27차 이사회/증장기발전위원회
31	종무식

인사 동정

◎ 승진(1. 1부)

· 이달권 업무실장, · 류해열 부
산지부 사무국장(차장), · 이상식

롯데 안인순 광주·전남 지부장, 이희평 충남지부장, 임채균 경북서지부장 등에 대한 포상식을 갖고 유공을 치하했다.

건축물유지관리협회 안전관리담당자를 상시근무자로 선임토록 행쇄위 민원제출에 협회 강력대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의 소속 직원을 선임토록 규정한 현행 전기사업법에 대해 상시 근무하는 자로 선임이 가능토록 개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건축물유지관리협회 민원이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됐다.

이번 민원에 대한 심의 향방에 일선 전기기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은 물론 이에 따른 우리 협회는 사안 검토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토록 전기사업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두고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 시무식 모습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축물유지관리협회가 행정쇄신위에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의 소속직원 대신 상시 근무하는 자로 선임이 가능토록 민원을 제출한 가운데 우리 협회에서는 만약 이 민원이 심의 통과될 경우 시공자인 전기공사업체를 비롯 용역업체도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 가능케 됨으로써 전기기사들의 취업대상이 용역업체로 한정돼 의욕 상실을 초래하는 것을 비롯 시설주의 전기안전에 대한 책무가 약화돼 전기사고 발생 요인이 증가하게 되며 나아가 전기사용합리화 추진에 차질을 야기, 국가적 차원의 주요 전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각계의 경각심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원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우리 협회는 이번 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행정쇄신위 민원 건에 대해 용역업체 소속 전기기사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올해년 새해 시무식 가져

올해년 새해 시무식이 지난 1월 3일 협회 사무실에서 본부 및 지부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권용득 회장은 시무사를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로지 협회발전과 회원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훗날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일에 전력해 주길」 당부했다.

기술안전위원회

- 일 자 : 1994년 12월 6일(화)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 석 자 : 안용승위원장 외 10인
- 토의내용
 - 1)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판정기준 제정에 관한 건
 - 2)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기술 인력 경력확인을 본부에서 지부로 이관에 관한 건
 - 3) 기타 전기기술안전에 관한 건

교육홍보위원회

- 일 자 : 1994년 12월 16일(금)
- 장 소 : 협회회의실
- 참 석 자 : 김성모위원장 외 5인
- 토의내용
 - 1) '95년도 전기안전관리사 직 무교육 교과목 및 집필자 선정의 건
 - 2) '95년도 보수교육 교과목 및 집필자 선정의 건
 - 3) 제44회 기술강습회 교과목 및 집필자 선정의 건
 - 4) 회지원고 채택에 관한 건

제27차 이사회

- 일 자 : 1994년 12월 28일(수)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 석 자 : 권용득회장 외 11인
- 회의내용
 - 1) 규정개정(안) 심의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2) '95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심의의건 : 원안대로 의결
 - 3) 기타 토의사항

전기설비 안전진단

◎ 신내 2차 전영APT

- 일 자 : 1994년 12월 7일(수)
- 장 소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 전기설비 :
 - 수전 22.9KV/2050kVA
 - 발전 380V/600kW
- 진 단 자 : 정연해차장 외 7인
- ◎ 대한건설협회

- 일 자 : 1994년 12월 18일(일)
- 장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 전기설비 : 수전 6600V/175kVA
- 진단자 : 최장우대리 외 1인
- ◎ 한국상업은행
- 일 자 : 1994년 12월 22일(목)
- 장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 전기설비 :
 - 수전 22KV/1500kVA
 - 발전 3.3KV/155kW×2대
- 진 단 자 : 정연해차장 외 7인



▲ 서울남서지부 전기인의 밤



▲ 서울북동지부 전기인의 밤



▲ 경기지부 '94 전기인 송년의 밤



▲ 대구지부 전기인의 밤 및 특별세미나



▲ 경북동지부 전기인의 밤



▲ 충남지부 '94 송년 전기인의 밤



▲ 서울북서지부 '94 전기인의 밤